

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6/12/12

2016년 올해를 빛낸 스포츠선수

한국갤럽은 2005년부터 매년 말 그 해를 빛낸 각 분야 ‘올해의 인물’을 발표해 왔는데요. 올해는 이를 위해 11월 4일부터 25일까지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남녀 1,700명을 면접조사했습니다. 지난주 코미디언/개그맨에 이어 오늘은 스포츠선수를, 이후 영화배우, 탤런트, 대중가수/인기가요 등 분야별 ‘2016년을 빛낸 인물’을 차례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조사 개요

1. 조사기간: 2016년 11월 4~25일(3주간)
2. 표본추출: 2단계 층화 집락 지역 무작위 추출-표본 지점 내 성/연령별 할당
→ (참고) [한국갤럽 옴니버스 조사 표본설계 보고서](#)
3. 응답방식: 면접조사원 인터뷰
4. 조사대상: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남녀 1,700명
5. 표본오차: $\pm 2.4\%$ 포인트(95% 신뢰수준)
6. 응답률: 37% (총 접촉 4,613명 중 1,700명 응답 완료)
7.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주요 결과

- 2016년 올해를 빛낸 스포츠선수 1-2-3 위: 손연재-손흥민-박인비
- 최고의 스포츠 스타 김연아-박지성 빈자리 채울 주자는?
- 10위 안 대부분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리우올림픽 출전 선수들
- 남성은 손흥민-손연재-박인비, 여성은 손연재-손흥민-김연아 순으로 꼽아

2016년 올해를 빛낸 스포츠선수 1-2-3 위: 손연재-손흥민-박인비

한국갤럽이 2016년 11월 4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전국(제주 제외)의 만 13세 이상 남녀 1,700명을 대상으로 올 한 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스포츠선수를 두 명까지 묻은 결과(자유응답),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가 29.8%의 지지로 1위를 차지했다. 그는 올해 리우올림픽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하게 결선 진출해 4년 전 런던올림픽 때보다 한 계단 상승한 개인종합 4위에 올랐다. 남성보다 여성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

2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의 간판 공격수 **손흥민**이다. 그는 2013년 8위, 2014년 5위, 2015년 1위로 3년 연속 네 계단씩 뛰어오른 바 있고, 올해는 근소한 차이로 2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그에 대한 지지는 작년 24.4%에서 올해 27.3%로 오히려 늘었고, 특히 남성들은 손흥민을 첫손으로 꼽았다. 손흥민은 작년 8월 이적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강팀 토트넘 홋스퍼 FC에서 성공적으로 데뷔했고, 현재 팀의 강력한 공격 옵션으로 활약 중이다.

3위는 ‘골프 여제’ **박인비**(16.6%)로, 작년에 달성한 커리어 그랜드슬램(4개의 다른 메이저대회 우승)에다 올해 리우올림픽 금메달까지 더해 골든 커리어 그랜드 슬램이란 전무후무한 기록을 만들었다. 올림픽 직전 경기 결과가 좋지 않았고 엄지손가락 부상 등으로 대표 선발 과정에 논란도 있었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세계 랭킹 1위인 리디아 고(뉴질랜드) 등 경쟁자들을 압도했다. 올해 8월 하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리우올림픽에서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한 선수’ 1위에 오르기도 했다.

4위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을 끝으로 현역 은퇴한 ‘피겨 전설’ **김연아**(14.5%)다. 그는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을 비롯해 여자 피겨 사상 최초의 그랜드슬램(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4대륙선수권대회, 그랑프리 파이널) 달성과 ‘올포디움’(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3위 내 입상)이란 대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마지막 무대에서는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도 편파 판정 논란 끝에 은메달을 목에 걸어 세계인의 탄식을 자아냈다. 은퇴 후 적잖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 중인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여전히 큰 화제가 되고 있다.

5위는 리우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 **박상영**(8.8%)이다. 그는 패색이 짙었던 올림픽 결승전에서 기적의 역전극을 일궈내 전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할 수 있다’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월드컵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해 세계 랭킹 1위에 올라섰다. 올림픽, 아시아선수권, 아시안게임을 모두 제패한 박상영은 내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그랜드슬램’을 달성할 수 있어 한층 기대를 모으고 있다.

6위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슈틸리케호의 ‘중원 사령관’ **기성용**(7.2%)이다.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 시티 AFC 소속 미드필더로 작년에는 아시아 선수 역대 한 시즌 최다골(8골) 기록을 세우는 등 맹활약을 펼쳤지만, 올해 들어 귀돌린 전 감독 체제 하에서는 자주 기용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소속 팀의 새 사령탑이 된 EPL 사상 첫 미국 출신 브래들리 감독은 기성용

중용 가능성을 내비쳐 그의 도전에 국내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위는 일본 야구 평정 후 올해 미국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거포’ **이대호**(6.0%),

8위는 리우올림픽에서 맹활약한 ‘배구계의 메시’ **김연경**(5.7%),

9위는 재작년 5월 공식 은퇴한 ‘영원한 캡틴’ **박지성**(5.6%),

10위는 올해 잦은 부상으로 고전하다가 최근 회복해 내년 시즌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또 한 명의 메이저리거 ‘추추 트레인’ **추신수**(4.4%)다.

그 외 20위권에는 강정호(4.0%, 야구), 박태환(3.3%, 수영), 기보배(3.2%, 양궁), 이동국(3.1%, 축구), 류현진(2.9%, 야구), 장혜진(2.5%, 양궁), 진종오(2.2%, 사격), 오승환(1.9%, 야구), 이승엽(1.7%, 야구), 구자철(1.5%, 축구) 등이 포함됐다.

▶ 2016년을 빛낸 스포츠선수 - 상위 10위 (2명까지 자유응답)

순위	이름	%	종목	소속팀
1위	손연재	29.8	리듬체조	-
2위	손흥민	27.3	축구	토트넘 홋스퍼 FC
3위	박인비	16.6	골프	KB금융그룹
4위	김연아	14.5	피겨스케이팅	-
5위	박상영	8.8	펜싱	-
6위	기성용	7.2	축구	스완지 시티 AFC
7위	이대호	6.0	야구	시애틀 매리너스
8위	김연경	5.7	배구	페네르바체 SK
9위	박지성	5.6	축구	-
10위	추신수	4.4	야구	텍사스 레인저스

질문) 2016년 한 해 동안 가장 한국을 빛낸 스포츠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녀 구분 없이 두 명만 말씀해 주십시오. (2명까지 자유응답)

*한국갤럽 2016년 11월 4~25일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00명 면접조사 www.gallup.co.kr

최고의 스포츠 스타 김연아-박지성 빈자리 채울 주자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김연아-박지성-박태환이 자리만 바뀌가며 ‘올해의 선수’ 1~3위를 독식했고, 특히 김연아는 최근 10년간 모두 5위권에 들었다. 은퇴 후에도 팬들의 사랑이 끊이지 않는 최고의 스포츠 스타 김연아와 박지성의 빈자리를 채울 주자는 누구일지 주목된다.

▶ 올해를 빛낸 스포츠선수 - 최근 10년간 추이 (% , 2명까지 자유응답)

순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위	김연아(52.0)	김연아(56.1)	김연아(82.8)	박태환(61.6)	박지성(57.6)
2위	박태환(45.4)	박태환(55.4)	박지성(40.7)	김연아(50.0)	김연아(55.9)
3위	박지성(28.8)	박지성(23.9)	박태환(14.5)	박지성(35.6)	박태환(26.0)
4위	이승엽(11.8)	장미란(21.8)	추신수(10.9)	추신수(16.2)	이대호 (6.5)
5위	최경주 (5.2)	이승엽(11.5)	박찬호 (9.6)	장미란 (7.7)	박주영 (5.4)
순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위	손연재(37.6)	류현진(51.4)	손연재(42.0)	손흥민(24.4)	손연재(29.8)
2위	박태환(29.1)	김연아(35.2)	김연아(33.3)	손연재(17.5)	손흥민(27.3)
3위	박지성(23.7)	손연재(24.9)	류현진(29.1)	추신수(16.9)	박인비(16.6)
4위	김연아(23.0)	박지성(18.8)	박태환(24.5)	김연아(15.1)	김연아(14.5)
5위	양학선(16.3)	추신수(17.0)	손흥민(12.9)	기성용(13.1)	박상영 (8.8)

*한국갤럽 매년 말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00명 면접조사 www.gallup.co.kr

10 위 안 대부분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리우올림픽 출전 선수들

- 남성은 손흥민-손연재-박인비, 여성은 손연재-손흥민-김연아 순으로 꼽아

매년 10위 안에는 양대 인기 종목인 야구, 축구 선수들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각 종목별 세계 랭킹 상위권에 속하는 리우올림픽 출전 선수들이 많았다.

남성은 손흥민-손연재-박인비, 여성은 손연재-손흥민-김연아를 각각 '올해의 선수' 1~3위로 꼽아 성별 차이를 보였다.

▶ 2016년을 빛낸 스포츠선수 - 성/연령별 (% , 상위 10위, 2명까지 자유응답)

	표본수 (명)	(1위) 손연재	(2위) 손흥민	(3위) 박인비	(4위) 김연아	(5위) 박상영	(6위) 기성용	(7위) 이대호	(8위) 김연경	(9위) 박지성	(10위) 추신수
전체	1,700	29.8	27.3	16.6	14.5	8.8	7.2	6.0	5.7	5.6	4.4
성 남	846	25	34	17	11	8	9	7	5	7	5
별 여	854	35	20	16	18	9	6	5	7	4	4
연 13~18세	135	37	32	6	19	11	9	4	8	6	3
령 19~29세	276	28	35	15	14	9	10	5	9	6	4
별 30대	286	28	35	19	11	10	7	5	6	5	6
40대	331	27	26	21	12	9	7	7	6	5	5
50대	311	29	24	20	16	8	5	9	3	6	4
60대이상	362	33	18	13	18	8	7	5	4	6	3
남성 13~18세	70	34	39	6	13	9	9	5	5	9	3
19~29세	145	24	45	14	11	6	14	5	7	10	3
30대	146	26	43	18	8	9	7	8	3	5	7
40대	168	20	32	18	11	8	9	8	6	6	6
50대	157	23	30	22	12	8	6	10	4	6	4
60대이상	160	29	22	17	11	10	7	7	3	7	5
여성 13~18세	64	41	25	7	25	14	9	3	12	3	2
19~29세	131	32	23	15	17	14	4	5	10	2	5
30대	140	31	28	21	14	11	8	2	8	4	6
40대	163	35	19	24	14	9	4	6	7	4	4
50대	154	35	18	17	20	7	4	8	3	6	5
60대이상	202	36	15	9	23	6	7	3	5	5	2

질문) 2016년 한 해 동안 가장 한국을 빛낸 스포츠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녀 구분 없이 두 명만 말씀해 주십시오. (2명까지 자유응답)

*한국갤럽 2016년 11월 4~25일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00명 면접조사 www.gallup.co.kr